

아시아 電子會議 및 AEU 總會參加報告

申 龍 徹

大韓電子工學會會長



第 8 次 아시아 電子會議(Asia Electronics Conference-AEC) 및 第 4 次 아시아 電子聯盟(Asia Electronics Union-AEU)總會가 1975年 10月 1日부터 1週間 濠州政府 主催로 멜보른市에서 開催되었다. AEU는 電子科學技術과 工業의 振興을 위한 아시아 各國의 國際協力機構로서 每隔年 總會를 여는바, 이번 會議에는 會員國인 濠州, 印度,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日本, 韓國, 말레이시아, 比律賓, 싱가포르, 스리랑카 및 泰國, 非會員國인 뉴질랜드, 國際機構인 아시아 放送聯盟(ABU) 및 UNESCO로부터 50餘名의 代表 및 傭저버가 參席하였다. 韓國代表로서는 學會에서 本人과 金丙熙副會長, 業界에서 具貞會金星電氣(株)社長等 3名이 參席하였다.

멜보른市는 濠州 第2의 港口都市로 南緯 38度의 10月은 서울의 淸明한 가을의 反對로 溫和한 봄이었으며, 해가 北쪽에 있어 오른 편에서 떠서 왼편으로 지는 것을 보고 地球의 南半球에 온것을 實感케 할 뿐, 거리의 모습은 美國의 現代都市 그대로였다.

會議主催는 濠州政府의 工業省(Depart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과 濠州電氣通信會社(Telecom Australia)가, 그리고 工業團體인 濠州電氣通信開發協會(Australian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Association)가 後援하였다. 會議場所는 代表들의 宿所를 겸하여 國際水準級의 Southern Cross(南十字星)호텔이며, 濠州電氣通信委員會(ATC)計劃局長이며 AEU副會長인 브렛氏를 議長으로하여 10月 1日濠州總督 존·커卿의 開會辭로 開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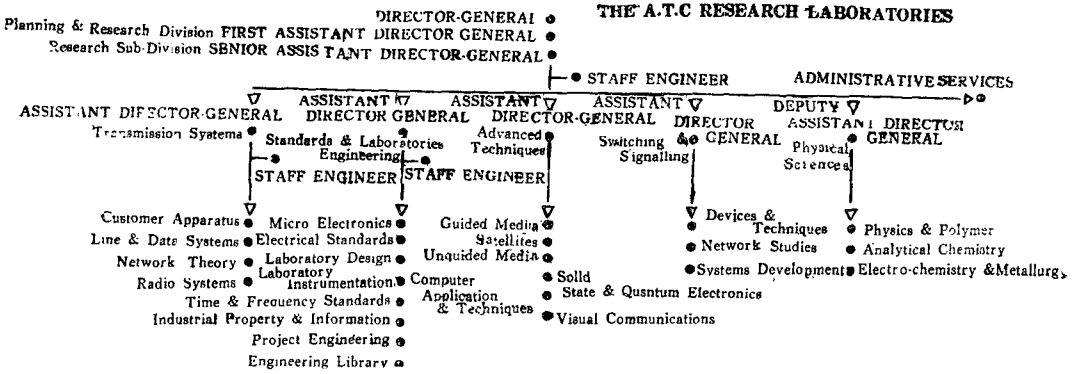
初日과 第2日에 걸친 國家別報告(Country Report)에서는 各國의 電子分野의 政策, 活動狀況 및 展望等에 대한 書面報告와 아울러 各國代表의 口頭要約演說이 있었으며, 이어서 質疑應答과 討論이 交換되는 바, 우리에게 대한 質問은 어느나라에 比하여도 眞摯하였으며 特히 技術集約을 指向하는 R&D展望과, 電子工業發展을 뒷받침한 多數의 技能者를 短時日에 養成할 수 있었던 產業訓練시스템의 實態等에 非常한 關心이 集中되었다. 會議場에 數十部式 餘分으로 갖다놓은 各 國家別報告書가 韓國것만이 消盡되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이것으로 東南亞 諸國들이 電子工業育成에 있어 우리나라의 發展相을 注視하고 있음을 認識할 수 있었다.

國家別報告를 통하여 看取될 수 있는 바는, 濠州, 인도네시아, 이란等 資源保有國들이 電氣通信

施設의 大規模擴張과 通信工業開發에 置重하고 있는 反面에, 餘他非資源國들은 國民所得을 위한 民生用電子工業에 注力하고 있으며, 特히 勞働集約으로부터 技術集約을 指向하는 研究開發(R&D)과 會員國間的 技術交流에 着眼하고 있음이 確然하였다.

興味있는 몇가지 “토픽”을 들면, 印度는 最初의 國產通信衛星 “Aryabhata”를 成功的으로 發射한데 이어, 最近 <衛星教育 TV放送>實驗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ATS-F衛星으로부터 TV放送이 2,400村落을 카버할 수 있는 것이며, “델리”와 “아메다바드”의 地上局으로부터 TV프로를 衛星에 發射한다. 受信은 鐵網안데나에 特別히 設計한 受像機를 쓴다. 다음은 인도네시아가 <國內衛星通信>計劃을 ITT와 契約, 總豫算 2億弗로 2個의 通信衛星으로서 全國 各島嶼 40個所의 地上局을 連結하는 것으로, 1976年 竣功하던 아시아 最初이며 世界的으로는 美國 캐나다에 다음가는 國內衛星通信網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國內衛星通信網計劃은 比律賓의 것으로, INTELSAT의 賃借 衛星으로 마닐라의 統制地上局과 7個의 地方地上局을 連結하는 것인데 1976年末 開通 豫定이다. 놀라운 것은 이란의 電氣通信 5年計劃으로서 總豫算이 30億弗에 達하는 것이다. 가장 큰 것은 電子交換電話施設인데, 既存 EMD式의 60萬加入을 1978年 3月까지 電子交換機를 施設하여 總 200萬 加入으로 擴張하는 것이다.

第2日 午後에는 電氣通信研究所 視察이 있었다. 郵政長官(Post Master General)이 管掌하던 濠州의 電氣通信은 今年 7月부터 電氣通信公社(Telecom Australia)로 改編되었으며, 監督機關으로서 濠州電氣通信委員會(Australia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가 設置되었다. 이 研究所도 委員會(ATC)의 所屬으로 되었다. 機構組織은 5部24課로서 아래 圖表와 같다.



時間關係로 우리는 電子交換과 마이크로波傳送 關係만을 參觀하였는데, 機器의 開發보다는 主로 시스템의 適用研究를 하고 있는 印象이었다. 얼굴 가득이 수업을 기르고 뒤굽 높은 구두를 신은 젊은 研究員의 모습이 奇異하게 보였다.

第3日 및 第6日에는 다음과 같은 專門分科委員會(Working Group)報告와 심포지움이 있었다. (各 報告와 심포지움 基調演說의 內容은 政府에 提出한 報告書에 要約記載하였으므로 이를 參照하기 바람 省略한다).

專門分科委員會 報告 :

- 1) 電子分野訓練에 관한 地域內協力の 可能な 方案(濠州)
- 2) 地域內 各國의 通信工業 建設에 관한 問題點(印度)
- 3) 電子分野 研究開發에 관한 地域內協力の 可能な 方案(日本)
- 4) 整備에 관한 提言(濠州)

심포지움 :

- 1) 電子工業에 있어서의 技術傳達
- 2) 標準化와 電子工業

第 4 日은 土曜日로서, 濠州 第 2 의 都市 200萬人口의 벨보른市街를 觀光버스로 一巡하였다. 濠州은 1770年 쿡크船長이 英國旗를 쫓고 1788年 시드니에 最初의 移民이 上陸한 以來, 벨보른은 150年의 歷史를 갖고 있다. 거리가 넓직한 現代都市로 많은 自動車와 함께 美國과 같은 印象인데 黑人을 볼 수 없는 것이 다를 뿐이다. 濠州의 面積은 美國의 알라스카를 뺀 本土와 같으며 地下資源이 豊富(石油은 70%自足)한데 人口는 겨우 1,300萬이니 가히 白人의 地上樂園이라 할 수 있다. 言語는 勿論英語인데 “에이”를 “아이”로 發音하니 鐵道驛이 “라일와이·스타이손”이라 한다. 古蹟이 없는 게 아쉬운지 數 10年된 古屋들을 保存하고 英國에 있는 쿡크船長의 집을 公園에 옮겨다 놓고 자랑거리로 하고 있다. 商街에서 民生用 電子製品을 유심히 찾았으나 店舖도 드물고 商品도 貧弱하였다. 濠州은 電氣通信施設(人口 100人當 電話 35台 : 日本과 同一)과 通信工業(外國企業進出로 STC, Plessy, Ericsson, NEC, Philips, Siemens 等)의 高水準에 比하여, 民生用 電子工業은 보잘것없이 電車에 달린 커다란 SONY看板과 칼라 TV가 今年 3月 開局한 것으로 보아도 짐작이 간다. 이것은 資源保有의 鑛工業國으로서 社會間接施設인 電氣通信의 要求度는 높으나, 民生用電子製品은 輸出을 對象으로 하지 않는限, 1,300萬人口를 위해서는 國內生産이 크게 要求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第 5 日인 日曜日은 郊外의 濠州 野生動物園을 찾아, 名物인 에뮤, 고아라를 보고 캥가루와 記念攝影으로 解放感을 滿喫하였다. 캥가루는 國外 搬出禁止로 世界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最終 第 7 日이 AEU總會로서, 事務總長의 經過 및 決算報告, 本人의 監查報告(韓國이 監事國임) 向後 2年間의 事業計劃 및 豫算承認이 있었고, 10件의 總會 決議事項이 採擇되었다. 勸告決議案의 主要한 件은, 技術訓練의 國際的 協力活動, R&D의 會員國間 交流, UN 또는 다른 國際機構와의 關係強化 및 AEU會員 會費의 增額等이다. 또한 向後 2年間 服務할 會長團 選舉에 있어 會議主催國 慣例에 따라 다음과 같이 選出되었다.

會長—P.R.Brett氏(濠州), 前第一副會長

第一副會長—H. Nayer-Nouri氏(이란), 前第二副會長

第二副會長—申龍徹(韓國)

第二副會長으로 本人이 選出된 것은, 13個 會員國家의 國際的 比重으로 보아 1977年 이란主催(이란의 自願)에 이어 1979년에는 韓國開催가 當然히 期待된다는 모든 代表들의 衆望에 의한 것이었

다. 이를 우리 政府當局에 建議하여, 協力을 통한 電子技術과 工業振興의 國際的 使命을 遂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政府를 中心으로 產學 總動員體制를 結集하여 國威에 萬의一 이라도 損傷이 없도록 萬全을 期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會議期間을 통하여 連日 아침 9時부터 저녁 5時半까지 鴨 짜인 議事를 進行하는데, 主催國 事務陣容의 빈틈없는 準備와 各國代表들의 眞摯한 態度에 敬歎을 禁치 못하였으며, 또한 主催側의 “알뜰한” 經費節約을 보고 그들의 合理主義를 새삼 實感한 바이다.

